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646. 832. 7397
 212. 736. 8500 (EXT 355, 3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eoulsb@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 Jordan, OFM
 지도신부 : 이윤희 루카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luke0829ofm@gmail.com
 전교수녀 : 안 마리루시 (투스평포교베네딕도회서울수녀원) seoulsb@gmail.com
 사목회장 : 장철순 스테파노 646. 322. 2139 stfrancis.cj@gmail.com

제1독서 | 사도 2,14-36-41

화답송 | 시편 23(22),1-3-7,3-12-4.5.6(◎ 1)



(후렴)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제2독서 | 1베드 2,20-25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알렐루야.

복음 | 요한 10,1-10

영성체송 |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 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 하셨네. 알렐루야.

성가 | 입당 55 예물준비 221(218)
 영성체 180(181) 파견 131

신앙고백: 사도신경

† 전능하신 천주 성부

◎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밑줄 부분에서 고개를 숙인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미사 봉헌

연미사 지향

- 강순기이레네(성모회장님 어머니)
- 강순기 이레네
- 문종란 글라라
- 정성영, 김정숙
- 성하균 미카엘
- 민경하, 경복순
- 김예경 안젤라
- 김춘운
- 김응복 크리스티나

생미사 지향

- 이진형 베드로, 이영주 비오, 윤경혜 니나 생일 축하
- 유경자 데레사 빠른 쾌유를 위해
- 세계 평화를 위하여
- 조혜나 마리안나 생일 축하
- 2026 청년회 임원진들을 위해
- 청년회 펀드레이징을 위하여
- 건강한 마리아 박정임 성가정이 되길
- 허헌근 요셉, 이서안 치릴로 생일 축하
- 김영희 클라라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 임경하 요안나 수녀님과 부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 김지원 마리세라피나 수녀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 이윤희 루카 신부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 안혜진 마리루시 수녀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 대녀 조혜나 마리안나의 생일/축일 축하와 영육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체 분배	복사
4월 26일	박성현	정은철	이경자	이경자	백이백 이정현	허우현 최예준
5월 3일	국민준	이태주	장민우	장민우	진서윤 김중선	김민서 최예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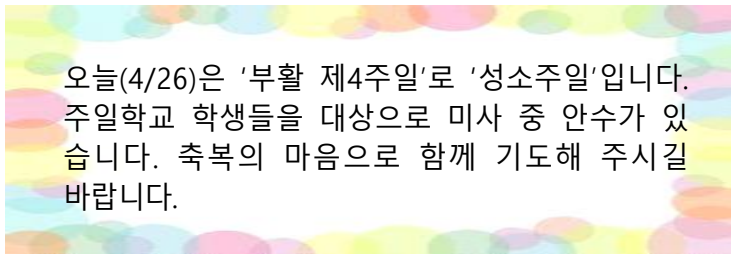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대성전
청년 미사	매달 둘째 토요일 오후 4:00 소성전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면담 후 결정 *신청: Sr. 마리루시
유아 세례	면담 후 결정 *신청: Sr. 마리루시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 Sr. 마리루시
예비신자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 Sr. 마리루시
견진 교리	방문교리(환자/어르신)*신청: Sr. 마리루시

*** 오늘 2차 헌금 있습니다.**

주일 미사 후 친교 모임

산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 분, 새로 전입오신 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오늘(4/26)은 '부활 제4주일'로 '성소주일'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사 중 안수가 있습니다. 축복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 오늘 지난 주일에 선종하신 강순기 이레네 자매님(현 성모회장 모친)을 위한 연도가 있습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시간/장소: 11시 10분, 아래성당

제19차 '사랑과 나눔의 바자회': 성프란치스코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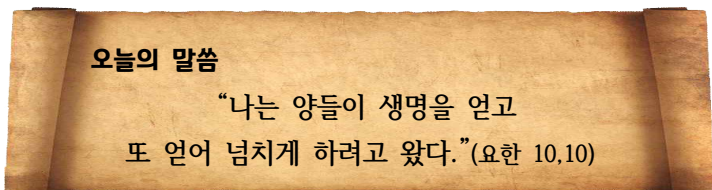
재속프란치스코 뉴욕 한국 순교자 형제회에서 바자회를 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5월 3일(토), 9:00AM-4:00PM

장소: 성 프란치스코의 집(St. Francis Care Center, Inc.)
 147-07 Bayside Ave., Flushing, NY 11354

5월 3일(주일) 황필구 신부 미사 집전

이우희 루카 신부님의 주일학교 신앙캠프(5/2-5/3) 동반으로 5월 3일 주일 미사는 황필구(요한카페스트라노, 브루클린 교구) 신부님의 주례로 봉헌됩니다.



오늘의 말씀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요한 10,10)

유아용품 플리마켓(주관: 학부모회)

학부모회에서 양육에 필요한 유아용품의 나눔과 재사용을 위한 플리마켓을 개최합니다. 작아진 의류, 깨끗히 사용한 장난감, 책, 각종 유아용품 등 아이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물품이 준비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오늘, 미사 직후 장소: 산 다미아노 홀

2026 청년회 펀드레이징

청년회에서 직접 제작한 성당 로고 자수가 새겨진 타월 세트를 판매합니다. 판매 수익금은 청년회의 시선으로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돕고, 청년회 운영 기금 및 공동체 교무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 오늘, 미사 직후, 산 다미아노 홀

품목: 성당 로고 자수 타월 세트

가격: 1 세트 (4개) 당 \$35

2026년 '성모의 밤' 행사

전공동체 행사이오니 교우분들의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일시: 5월 9일(토), 6:00PM

장소: 대성전(준비물: 필기구, 목주)

*'성모의 밤' 행사에 사용될 꽃을 봉헌하고 싶은 분들은 646-832-7397 (Sr. 마리루시)로 신청해 주세요.

2026년 제82차 미동북부 ME 부부주말

일시: 2026년 5월 15일 오후 7시 - 17일 오후 5시

장소: 뉴튼 수도원 (St. Paul's Abbey)

289 US 206. Newton, NJ 07860

문의 및 신청: 646-322-3484

장철순 스테파노 & 장혜윤 크리스티나

Chriskim04@gmail.com

Cheolsoo@gmail.com



2026년 청년회 하이킹 & 성지순례

청년회에서 청년들의 신앙심 고취 및 공동체 유대감 강화를 목적으로 하이킹 & 성지순례 행사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제: “너희가 나를 부르며 다가와 나에게 기도하면 너희 기도를 들어 주겠다.” (예레미야서 29,12)

일시: 5/22 - 5/24 (2박3일)

장소: Mount Minsi, Blue Army Shrine

참가비: \$230

접수마감: 5월 10일까지

문의사항: 929-660-4456(청년분과장 진현중 빈첸시오)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 신앙의 선조들을 찾아서

124위 복자 : 복자 현계흠 플로로 (1763-1801)



현계흠 플로로는 한양의 중인 집안에서 태어나 약국을 운영하며 살았다. 현 플로로는, 일찍이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여 열심히 교리를 실천하면서 살다가, 1791년 신해박해로 체포된 다음에 석방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곧 교회의 품으로 돌아왔고, 이후로는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다. 주 야고보 신부가 박해로 피신해야 했을 때, 그는 자신의 집을 피신처로 제공하기도 했다. 당시 그의 집은 '6회'의 하나로 선정되어 있었다. 6회란 평신도 단체인 명도회(明道會)의 하부 조직이며 비밀 집회소였다.

현 플로로는 1801년 신유박해 때 포도청에 자수하여 체포되었다. 그는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았으며, 1801년 12월 10일 서소문 밖으로 끌려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이때 그의 나이 38세였다.

현 플로로는 1801년 신유박해 때 포도청에 자수하여 체포되었다. 그는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았으며, 1801년 12월 10일 서소문 밖으로 끌려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이때 그의 나이 38세였다.

성화-김형주 作,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6
*출처: <의정부주보>, No. 1179, 가해, 2026. 04. 26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홍순완비오 노혜영리오바 이병국요한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 NY 10001
www.kunjip.nyc

Kim & Bob Shop
김밥, 비빔밥, 떡볶이 & More

배달 및 포장 전문, 케이터링 주문 환영
(929) 797-1212
826 9th Ave, New York, NY 10019
Between 54 & 55th Street
www.kimandbobshop.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EST WINE & LIQUOR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0AM-10PM / SUN: 12PM-9PM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CARGOZONE
LOGISTICS INC

양서윤 플라라 | Flora Yang
marketing@czlusa.com
657-337-5130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 색소-미백-레이저
보톡스 / 필러 / 여드름 흉터

Tel 212-697-1802 Text 917-670-7801
501 5th Ave #1601, NY, NY 10017

HAPPY HOME CARE

이지원 라파엘라 I:1 맞춤 방문 간호
Registered Nurse (347) 927-5635 (투약-검진-돌봄)
happyhomecare.rr@gmail.com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Colleen Insook Lee, M.D.
이인숙 내과

Tel: (212) 714-1170
Fax: (212) 290-9061
drleesmedical.mht@gmail.com (Bet. 32 & 33 St.)
1270 Broadway, #405 New York, NY 10001



이름을 부르시는 목자 정민하 율리오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요한 10,1) 이 말씀은 우리를 아시고 부르시는 참된 목자의 사랑을 묵상하게 합니다. 문으로 들어오는 목자는 자신을 숨기지 않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조용히 이끌어 주십니다.

교정 사목을 하며 교도소 안에서 한 청소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 상처로 마음을 굳게 닫은 채, 매주 조심스럽게 이름을 불러도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사 후에 그 아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신부님, 늘 제 이름을 불러 주셔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저도 신부님이 믿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그 친구의 말을 들으며, 누군가에게 이름을 불린 경험을 통해 두려움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말이나 설득이 아니라, 이름을 기억해 주고 기다려 주는 마음임을 교정 현장에서 자주 깨닫습니다.

성소 주일을 맞아 ‘부르심’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성소는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길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지켜 가는 부모님들, 각자의 일터에서 정직함을 선택하는 이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누군가의 하루를 조용히 지탱해 주는 손길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성소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미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10,7) 문은 막힌 벽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나아가도록 열어 주는 자리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단절이 아니라 연결을, 절망이 아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습니다. 닫혀 있던 마음이 열리고, 흩어졌던 관계가 이어지는 은총이 예수님이라는 그 문에서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하느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확신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이 깊어지는 삶입니다. 그 확신은 우리를 다시 사랑하게 하고, 넘어지더라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어찌면 성소란 거창한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 부르심에 한 걸음 내딛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기꺼이 응답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길 청합니다. 특히 주님의 부르심을 식별하고 있는 이들과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헌신의 길을 걷고 계신분들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이름 안에서 평화와 용기를 얻기를 기도합니다.



그림 해설

목자! “저곳에서 나 너의 것이 될 터이니, 이곳에서 너 나의 것이 되어 나오.” 어느 노사제께서 금경축의 인삿말로 들려주신 이 말이 문득문득 생각납니다. 그들이 간직했을 수많은 꿈과, 혀 밑에 눌러둔 세상의 언어들에 상상하면,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멈춤의 자리에서 바라본 목자의 이정표를 따라, 우리도 저들과 함께, 끝까지 하느님의 사람으로 남게 해 주십시오.

글 · 그림 하삼두 스테파노 | 작가